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 考究

— 堂神 본풀이와 人物(壯士) 傳說을 中心으로 —

玄吉彦·金永和

<目 次>

- I. 序
- II. 堂神본풀이·人物傳說·濟州民
- III. 堂神들의 一生
 - 3.1. 堂神과 濟州百姓
 - 3.2. 堂神들의 一生
 - 3.3. 怨神과 濟州民의 恨
 - 3.4. 濟州民의 存在樣式
- IV. 壯士의 一生
 - 4.1. 濟州傳說에서의 人物傳說의 위치
 - 4.2. 虛飢와 挫折(막산이型傳說)
 - 4.3. 섬(島) complex에 대한 해방의 意志
 - 4.4. 挫折과 抵抗의 삶의 樣式
- V. 抵抗과 삶의 眞摯性

I 序

1.1. 이 글의 의도는, 제주叙事巫歌인 堂神본풀이와 人物傳說 중 壯士傳說을 中心으로 그 說話를 향유했던 民衆들의 삶을 더듬고, 濟州民의 生活의 바탕이 되었던 精神을 밝히려는데 있다. 설화분석을 통한 精神의 探究란 자칫 상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위험을 갖고 있으나, 人間의 삶의 實相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作品으로는 설화 이상의 것이 없기에 설사 개념화할 수 없는 精神의 實체들까지도 설화를 통해 探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精神>이란 말의 개념은 극히 모호하지만 이 글에서는 行動樣式의 원천이 되는 의식의 總體라는 한정적인 意味를 부여 하려 한다.

어떤 집단의 精神을 찾아내는 일은 자칫 虛相을 붙잡아매는 일에 그칠 수도 있다. 그것은 첫째 그 의도가 作爲의일 때에 觀念의 遊戯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어떤 目的의 充足을 위하여 한 집단의 作業을 미화하려는 作爲의인 동기는 精神의 實相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기 마련이다. 精神은 觀念이 아니고 實體다. 행동을 동반하지 못한 精神 또한 그것은 虛構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特殊한 사례를 보편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精神의 탐구라는 作業은 여러 方法을 통한 오랜 작업의 결과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일이므로, 이 글도 하나의 시도이면서 方法的인 탐구에 그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설화의 分析을 통하여 민중들의 生活의 바탕이 되었던 의식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그것들을 종합하는 일로서 끝날 것이다.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濟州民의 것이라면 韓國人의 精神의 實體일 것이고, 또한 人類가 겪었던 狀況에 대한 人間들의 反應일 것이므로 그것대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2. 濟州精神 探究에 대한 作業은 그동안 여러 方面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표적인 경우는, 濟州大學 耽羅問題研究所가 主管한 <耽羅精神 세미나> 결과를 정리 발표한 일이다.¹⁾ 이 글은 耽羅精神을 역사적, 윤리적, 가치관과 민속, 민요, 풍토적, 自衛的, 文化적 측면에서 분석·고찰 종합하였다. 그 결론은 耽羅精神이란, 濟州民의 時共的·集團的·社會的 性格이라 보고, 濟州民의 傳來的·平均的 意識構造를 自彊不敗의 精神으로 간주하면서 對蹠的 意識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兩面的 (ambivalent) 規定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 本考도 그러한 作業과 관련을 갖지마는 결과가 반드시 일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꼭 일치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한 집단의 내면적 정신의 탐구는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方法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겪어왔던 한 집단의 정신은, 그 상황에 따라 부단한 變容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립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들의 生活自体가 狀況과의 부단한 葛藤鬭爭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고 보면, 항상 새로운 삶의 方法을 찾으려는 現實認識態度가 投影된 口碑文學에 대한 연구는, 文化의 원천적·보편적·민족적 存在樣相을 파악하고, 민중 생활 또는 民族의 創造力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³⁾ 길이 될 것이다. 口碑文學 중에서도 특히 설화에서는 그 설화를 향유할 민중들의 삶의 실체가 眞率하게 나타나 있어 한 집단의 存在樣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설화 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濟州精神에 대한 探究는 그 연구에서 얻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지금까지 濟州說話들을 통하여 濟州民의 삶의 方法을 추구해온 作業 중 하나가 될 것이며, 先行作業들과⁴⁾ 關係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3. 이 글은 한 마을 주민의 生活를 지배해온 堂神의 내력담인 堂神본풀이와 人物傳說 중

1) 玄平孝, 의 “耽羅精神의 探究” (세대논문집 제11집, 1980)

2) 뒷글, (pp.23-47) 참조.

3)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p.15.

4) 玄容駿, “본풀이의 形成과 內容”, (韓國語文學 1輯, 1963)

—— “巫俗神話 본풀이의 形成”, (국어국문학 26, 1963) 의 다수.

에서 壯士傳說들을 대상으로 한다. 堂神본풀이나 人物傳說是 口碑文學의 일부 영역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한 분석의 결과도 결국은, 說話를 통한 濟州精神의 일면적 고찰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비록 설화의 장르 種의 일부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오래동안 存立해오면서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堂神본풀이나 人物傳說을 향유한 민중들이 存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共時性和 通時성은 지역과 역사의 맥락속에 공통된 민중의 存在樣式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설화를 통한 傳來的·平均的·意識構造 축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堂神본풀이는 한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이뤄지면서 祭儀의 도움 속에 성장해 왔다. 그것은 부락민의 정신적 저주였다. 그것은 부락堂의 神의 이야기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堂神의 本을 푸는 과정(祭儀)을 통한 대상에 대한 행위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深層的 恨의 풀이이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이다. 人物傳說도 마찬가지다. 한 人物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내 아들, 나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자기를 결속시킨다. 여기에 자연히 역사와 사회에 대한 민중들의 適應樣式이 存在한다. 堂神본풀이와 人物傳說이 갖는 민중의식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들 작품에 나타난 作品들의 현실의식의 태도와 정신은 文學의 주제와 사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전개에 계기가 될만하다.⁵⁾ 이 글의 초점은 민속 문예작품인 堂神본풀이와 人物傳說 속에서 濟州民의 存在樣式을 찾아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설화작품의 주제에 대한 연구이면서 작가 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II 堂神본풀이 · 人物傳說 · 濟州民

2.1. 堂神본풀이나 人物傳說이나간에 그것은 많은 향유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뤄진 流動文學이고 積層文學이다. 그것은 창작자나 전달자가 구별되지 않는다. 완성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무한정 계속된다⁶⁾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의식의 동질성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초월하게 한다. 그러기에 그것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 堂神본풀이는 당시의 신앙, 사회경제생활의 현실적 사실이 神話化된 것이요⁷⁾ 濟州民의 生活의 眞相이 投影된 것이다. 그것은 一般的인 神話와 같이 自我와 世界가 상호 補完的이거나 동질적인 관계

5) 조동일, 원글

6) 「國語國文學辭典」, (서울대 東亞文化研究所, 1973), pp.93-94.

7) 玄容駿, “堂神話의 構成과 背景民俗信仰”, (濟大學報 6號, 1964), p.14.

를 갖는 神話的 秩序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⁸⁾, 自我와 世界와의 갈등 투쟁에서 自我가 패배하는 전설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에 神異性보다는 人間性이 더 깊게 깔려있어 오히려 전설에 가깝다. 이 문제는 바로 이 글의 초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락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의 吉凶禍福을 주재하고 그 값으로 그들에게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배고픈 신들의 이야기이다.

濟州民들의 堂神에 대한 祭儀는 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로 밀착되었고 관습화되었다. 한 집단이 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강요할 때는 언제든지 祭儀的 關係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러한 태도는 그 대상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내포한다.⁹⁾ 이 경우는 부락민들의 堂神에 대한 태도와 같다. 이러한 점에서 부락 堂神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결속(solidarity)과 지속(permanence)을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것(sacred)이 되며¹⁰⁾ 그 지역의 구체적인 사물—나무, 바위, 굴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堂은 바로 그 마을의 表象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기구할 일이 없더라도 정해진 祭日이면 堂에 모여서 祭儀를 베푼다. 그러한 祭儀에서 이루어지는 본풀이는 마을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가 이뤄진다. 그것은 실사 무당굿놀이가 아니고 巫覡들에 의해서 口誦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본풀이가 신의 내력담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기구한 슬픈 내력담으로 받아들여져서 心理的 同一性(identity)을 갖기에 이른다.¹¹⁾ 철마라 날마라 그 곳을 찾는 그들은 그 巫覡과 만나면 그 불행했던 神과 만나게 되고, 다시 자신의 內面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본풀이는 예술성과 아울러 주술성을 갖게 된다.

주술성은 고정적인 관습상 변화를 거부하지마는, 예술성은 새로운 인식이어야 하는 본질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 밖에 없다.¹²⁾ 그 변화는 시대와 상황이 반영이면서 바로 듣는 자의 호응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한 마을의 역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함께 성장 발전 하면서 살아있는 문예로서 存在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예술성 속에 본 불변의 요소가 간직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공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공통적 사유에 바탕을 둔 보편적 이미지(collective images)이다.¹³⁾ 이와 같이 본풀이는 원초적 사유와 현실에 대응하는 의식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8)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p.135.

9) A. R. Radcliffe-Brown, ed.,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London: Cohen West, 1965), (p.123)에서 토렘과의 제의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堂神에 대한 부락민의 의식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0) *ibid.*, pp.124-125.

11) Carl G. Jung, ed.,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pp.6-7)참조.

12)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p.235.

13) Carl G. Jung, ed., *op. cit.*, "The archetype in dream symbolism, p. 57.

특히 제주도의 堂神본풀이에서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함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사회성과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본풀의 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개의 모티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堂神이 좌정하게 된 경위와 각 先住民들이 새로이 정착개척하고 設村되어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경우가 많다.¹⁴⁾ 현재 각 村·리가 거의 씨족 중심으로 設村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집단이 어떤 대상에 정신적인 집결체를 설정하려는 것과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⁵⁾ 둘째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제도, 풍습, 관습들이 본풀이에 나타나 있다. 김 통정 이야기(城山本鄉堂과 安徳面 德修里 광정당), 목사 순력에 따른 사건(西歸 칠성당 安徳面 和順里 곤물당)등의 본풀이에 직접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人間과의 갈등, 崇佛思想, 自然事象이나 人文事象들의 起源을 설명하는 내용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규범 도덕적 생활 관습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해도 堂神본풀이는 神의 이야기이기 전에 인간들의 이야기로서 전승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2.2. 人物傳說의 意味는 보다 현실적이다. 그것에는 민중들의 의식속에 억압되면서 새겨진 世界와의 葛藤이 한 人物을 통하여 절실하게 投影되어 나타나 있다. 島民들은 늘 패배하여 살아왔다. 끊임없는 挫折의 반복 속에 한 人物의 이야기지만 모든 島民들의 이야기로서 한 세대 한 지역의 精神的 歷史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人物傳說은 歷史意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지니게 된다.¹⁶⁾

人物傳說은 과거의 人物을 회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만들며 듣는다. 현재에 대한 자기 의식을 표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없는 人物傳說은 차차 잊혀질 수 밖에 없다.¹⁷⁾ 그래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들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판지를 갖도록 변모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전설이 갖는 역사성과 사회적 의미가 있다.

어떤 人物의 非凡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非凡함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었던 그 억압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과장과 상상력을 동반하여 전과되면서 변모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에 가서는 그 人物이 갖는 사실은 망각되고 虛構인 전설만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전설이 사실처럼 이해하게 된다.¹⁸⁾

그러므로 傳說도 역사적인 意味를 지닌다. 어떤 때는 하나의 알레고리로서의 역할도 담당한

14) 玄容駁, 앞논문, p.24.

15) 성산, 포선 일대의 당본풀이 경우 堂神이 마을에 좌정하면 그마을 대표 姓氏들을 다 모아 자신의 坐定을 알리고 奉祭할 것을 당부하는 경우가 있다.

16)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p.35.

17) 조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p.435.

18) 앞책, (pp.432-4) 참조.

다. 설사 그러한 전설이 사실과는 다르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사람들이 갖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의식의 결과이므로 역사적 진실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濟州民이 향유해온 人物傳說들은 제주사람 각자의 이야기들로서 그들의 삶의 樣式을 보여주는 것이다.

2.3. 더구나 濟州의 人物傳說은 濟州歷史의 불모성과 폐쇄성을 설명하면서 濟州民의 좌절과 그 극복을 보여주고 있다. 숙명적인 불모의 땅에서 고종달[胡宗旦]의 斷厥으로 生水도 人物도 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좌절 속에 새로운 人物을 기다리는 熱望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제주사람들은 숙명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의 方法을 찾는 態度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 대한 탐구는 끝없는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저항을 동반한다. 그러한 의식들을 人物傳說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폐쇄된 사회 속에서 작가들은 사회상황의 경직성에 노예가 되기 쉽다. 그러나 전설은 하나의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직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러므로 眞率性을 유지할 수 있다.

堂神본풀이와 人物傳說들이 갖는 이러한 점들은, 이들 作品分析을 통하여 濟州民의 內面的 實體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2.4. 堂神본풀이는 이미 수집 정리된 자료집 중에서¹⁹⁾ 부락 堂神들에 대한 본풀이 중 그 틀쫓이 정연한 것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거기에 그 堂에 坐定한 신들의 일생 중심으로 하여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의 단위로서 出生·成長, 그리고 죽음(巫神의 坐定)의 과정을 통하여 한 神(人物)의 全體的인 삶을 살피려 한다.

人物傳說은 제주 인물전설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고종달型 전설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고찰은 이미 있었던 바²⁰⁾ 壯士傳說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것은 이 유형의 전설에서 堂神본풀이의 모습과 같은 유형의 人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는 이미 수집 정리한 전설집과²¹⁾ 본인이 직접 수집한 것들에서 취하였다.

人物傳說은 堂神본풀이와 같이 한 人物의 一生譚이 아니고, 일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모여 이뤄졌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一生譚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풀이와 같이 취급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한 人物들의 사회와의 갈등 극복의 한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 玄容駿,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20) 玄吉彦, “風水(斷厥)說話에 대한 一察考,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1978)

21) 玄容駿, 「濟州島傳說集」, (瑞文堂, 1976)

Ⅱ 堂神들의 一生

3.1. 堂神과 濟州百姓

3.1.1. 이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濟州島 內 堂분포 상황은 260여개에 이르고 있다.²²⁾ 현재 행정 里洞數에 비교하면 1개 부락에 1~2개의 堂이 있고, 많은 곳에는 5개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서 堂과 濟州島民들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堂은 그 부락의 모든 일을 맡아 수호해 주는 神이 常住하는 곳으로서 그 神에 대한 祭儀가 부락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성스러운 곳(sacred)으로 인식되어 진다. 그러므로 이 祭場인 堂에서 이뤄지는 祭儀는 그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求心處로서 부락민의 生活를 규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神堂의 祭儀가 언어로 表現될 때 본풀이가 이뤄진다. 그러한 祭儀는 단지 宗教的인 性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說話하면서 현실과 밀착시키어서 생활의 한 中核이 된다.²³⁾ 그러므로 祭儀에서 불러지는 구체적인 神의 來歷 譚인 본풀이는 바로 부락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구실을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生存에 대한 물음이 된다.

濟州의 堂神이나 본풀이는 어떤 表象의 意味를 갖는다. 堂에 대한 民衆의 태도는 堂 그 自体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다. 그건 마치 敎會나 사찰을 다하는 신도들의 감정과 같은 것이다. 堂이라는 실체—나무, 바위, 돌 등—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神의 대치물인 한 表象으로서 대하게 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를 통하여 神과 자기와의 同一性(identity)을 인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고난의 역경을 극복하고자도 끝내는 버림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의 供養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신에 대하여 친밀한 감정을 갖게되며, 그러한 가운데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처럼 인식하게 된다. 또한 巫覡들도 祭儀 참석자들의 생존의 문제와 관계를 가지도록 본풀이를 자주 다듬어 나간다.

3.1.2. 본풀이의 최초의 형태는 堂神에게 어떤 내용을 기원하는 단순한 것이었을 것이다.

「신도본향 어진 한집, 용녀들어 너용 부인님 ㉠, XX마을 XX가 몇살 XX축원 올립니다. ㉡ 이것은 濟州市 龍潭洞 마스락당본초이다. 이 堂은 龍潭洞의 本郷堂으로 神名은 “龍王國大夫人 또는 “龍女國大夫人”이라 하는데 이 神에 대한 설화적인 본풀이는 없다고 한다.²⁴⁾ 이것은 “願辭의 가장 원초적인 형식으로 이를 분석하면 ~에게 ㉠ ~을 기원합니다. ㉡”로 ㉠은 神의 呼稱

22) 「濟州島巫俗資料事典」과 진성기편, 「南國의 巫歌」참조.

23) 金烈圭,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79), p.59 참조.

24) “巫俗神話 본풀이 形成”, p.125.

이고 ①은 祈願詞이다.²⁵⁾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西歸邑 西歸里에 있는 돈짓당본풀이다. 祈願의 대상신도 많아지고 祈願의 내용도 많다. 그러나 역시 대상신의 呼稱과 祈願詞의 結合으로 되어졌다.

이런 것이 좀더 성장하면 神의 계보, 坐定한 神名, 神의 기능, 祈願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보다 神의 계보가 더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변모가 발전하면 좀더 섬세한 플롯을 가진 神의 來歷譚을 이루는데,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祭儀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하고 예술적 감동을 동반한 심미적 쾌락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發展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민중들의 의식의 反影되면서 성장되어간다. 여기에 堂神본풀이의 리얼리티가 있다. 그것은 비록 사실성은 안 가진다 할지라도 경험의 한 양식이요 인간 표현의 하나이기에 현실성을 갖는다.²⁷⁾ 이러한 본풀이는 능숙한 口演 기능을 가진 巫覡들의 口誦에 의해 神들을 즐겁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神과 人間의 同一情緒를 갖게 만들면서 쾌락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문예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면 祈願者들을 同一情緒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풀이가 堂神과 민중들 사이에 정서적 교통을 도모하도록 다리를 놓아주기 때문이다. 不運한 자기(神)의 일생이 중간자(巫覡)들에 의해 他者(민중)들에게 전해지므로(폭로되므로) 자신의 억압감정에서 해방되면서 堂神은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민중들 편에서도 같은 정서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신의 이야기가 자기네의 처지와 같은 때문이다. 巫覡들의 口誦을 들으면서 불운한 神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며 동시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며, 그 다음엔 神과 자신이 同一情緒를 갖기에 이른다. 이렇게 신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他者(민중)들을 만나 더없는 기쁨을 갖게 된다. 그 동정의 심도가 깊을수록 神은 더 기쁘다. 그러므로 中間者(巫覡)들은 더 동정의 심도가 깊게 이야기를 엮어 나간다. 그 方法은 무엇인가? 그것은 神의 來歷譚을 人間의 來歷譚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神에 대한 기구의 呪願이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복잡하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그 呪願을 직접 듣는 他者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데 있는데, 여기에 바로 堂神본풀이의 민중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堂神의 來歷譚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來歷譚이고, 마을의 역사와 상통하게 된다. 한 마을, 동네의 모든 일을 주재하는 神은 바로 그 마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인격자라 할 때, 필연적으로 그 神의 본풀이는 곧 마을의 精神史를 압축해는 상징성을 띠게 될 것이다.

25) 앞글.

26) 앞글, p.126.

27) 金烈圭, 윗책, (pp.136-143) 참조.

이러한 각 마을의 堂神들은 全道的으로 그 神格의 系譜, 整序化되어 있는데,²⁸⁾ 이것은 濟州島 전체를 하나의 공동운명체의 단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각 마을 堂神의 이야기는 바로 濟州民의 이야기가 된다. 이제 제주 堂神본풀이 중 다음 作品들을 대상으로하여 각 堂神들의 일생과 서사구조를 통해 본풀이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²⁹⁾

- [1] 궁당(천주 또 마누라본) (濟州市 龍潭洞修根마을) (pp.591-596)
- [2] 케케깃당(舊左面 김녕리 神堂), (pp.636-647)
- [3] 中文本鄉堂(中文面 中文, 廻水, 大甫里), (pp.753-758)
- [4] 月汀本鄉堂(舊左面 月汀里), (pp.649-655)
- [5] 新豊下川本鄉堂(城山面 新豊里), (pp.693-698)
- [6] 兎山本鄉堂(일뿔당) (表善面 兎山里), (pp.706-712)
- [7] 오드렛당(表善面 兎山里 所在 神堂), (pp.712-721)
- [8] 好近本鄉堂(西歸邑 好近 西好里), (pp.744-746)
- [9] 각시당(濟州市 三徒洞 所在 神堂), (pp.596-597)
- [10] 오드싱本鄉堂(濟州市 吾登里), (p.601)
- [11] 눈미불뚝당(朝天面 臥山里 所在 神堂), (pp.618-620)
- [12] 당팻 하르방당 당팻 할망당(朝天面 北村里 神堂), (p.615)
- [13] 細花本鄉堂(백주도본)(舊左面 細花里), (pp.662-670)
- [14] 細花本鄉堂(금상님본) (舊左面 細花里), (pp.670-676)
- [15] 三達本鄉堂(城山面 三達里), (pp.689-693)

3.2. 堂神들의 一生

堂神들은 불운하게 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 출생 후부터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 그러한 고난은 영웅신화에서처럼 영광을 예비하기 위한 진통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끝내 그들은 버림을 받아 방황하다가 결국 救命圖食의 한 방법으로 한 마을을 택하여 坐定한 무력한 神으로서 전략하고 만다. 그들 神은 부락민들에게 祭儀를 받으면서 그 값으로 마을 定危를 보살피는 共生關係에 처하게 된다.

3.2.1. 追放과 定配

堂神들 대부분은 버림받은 神들이다 부모와 갈등으로 어릴때부터 버림을 받던지, 부모 말을 거역한 때문에 玉皇에서 세상으로 定配를 오던지, 역적이 되어 몸을 보신하려고 피난을 온 神들이다.

28)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 pp.34-39.

29) 집필의 편의를 위하여 「濟州巫俗資料事典」(이후 事典이라함) 소재 본풀이들을 자료로 하였으며 [1]~[15]는 임의로 붙인 번호임. 이후부터 당신본풀이 명칭대신 이를 사용한다.

3.2.1.1. 두 부모神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神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버림을 받는다.

[2]……백주님이 아기를 부러오니, 삼각귀(三角鬚)를 심어동기명 아버지 가슴(胸)을 짓두드리 는구나. <이 즈식 뻐 때에도 식신이 바뻐여 살림을 본산허연게 나도 이런 낫본 행동을 하니 죽일 려 하뵈 츄마 죽일 수는 잇고 동이와당(東海)데레 머와 불라> 무쇠설잡(鐵匣)에 식설(三歲)난 아들을 담안 봉뵈(자물쇠)를 채와가지고 동이와당(東海)으로 떠올레다. (p.639)²⁰⁾

[4]……글공부 활공부하다 말을 〽안들어 아방(父)눈에 걸리나고 [어명(母) 눈에 시켜나 삼부채 (三夫妻)를 귀양정배(定配) 마련 하난…… (p.686)

[5]……말갓아들(末男) 개로옥서또가 무쇠늑대 떼영황새(黃牛)테레 끼우꼭 황새(黃牛) 늑대 떼 영 무쇠테레 끼우꼭 아방(父)갓가심 두드리꼭 허여가난 무쇠 연갑에 담아 용동낭 상거심뵈뵈를 채와서 동이용왕국(東海龍王國)에 귀양정뵈 보뵈뵈다. (pp.693-4)

舊左面 金寧里 케뵈갓[2]의 경우,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백주또마누라가 濟州에 入島하여 소천국과 부부가 된다. 그 사이에 난 유복자가 아버지 소천국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여 鐵匣에 담아 바다에 떠워버린다. [1]에서도 이와 같은 藥兒모티브가 있다. [4]에선 글공부 활공부를 하지 아니해서 귀양오며, [5]·[9]에선 부모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다. 이 외에도 두번째 부인이 죄를 만들어 추방당하며, [6] 심술궂어 불효한 죄로 작은 바구니에 담아 서천밭으로 던져 버린다. [8]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일 계획으로 四神龍王으로 띄워버린다. [3] 제주堂神들은 이와같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데, 그 원인은 부자간의 관계 파탄이다. 孝를 바탕으로한 전통적인 부자 간의 관계를 神들이 거역하기 때문이다. [1][2][3][8] 등에서 그 점을 찾을 수 있다. [5][6][9]에는 부모 뜻을 거역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不敬이나 거역은 추방을 당한 神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수염을 뽑거나 가슴팍을 두드리거나, [1] 어명(母) 젖꼭지 뜯은 죄, 아방(父) 수염을 뽑은 죄, [8] 등……수염을 뽑으거나 뜯었다는 것은 아버지 위엄에 대한 도전이요, 가슴팍을 차고 젖꼭지를 뜯는 행위는 어머니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태도이다. 즉 부모에 대한 거부를 통하여 父子의 윤리관계를 거부한 것이며, 이는 바로 당시 교정가치관념에 반역이다. 그들은 처한 상황에 저항하다가 추방당하고 만다. 그것은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반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4][5]본풀이다.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글공부, 활공부)에서 이탈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황쇠 늑대를 무쇠에 매는 일) 등은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사회의 교정관념과 일상적인 가치관에 반기를 들어 추방을 自招한다.

3.2.1.2. 이러한 藥兒나 추방은 영웅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로서 汎世界性을 갖

30) 「事典」의 페이지 수임. 이후부터 이 사전의 본풀이를 인용할 경우 페이지란 표시할 것임.

는다. 특히 께에 담겨진 아이가 물 위에 표류하는 이른바 “漂流函”모티프는 세계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 三姓始祖의 夫人들, 바리공주 이야기, 이스라엘 모세도 棄兒이다. 또한 鰲洛國記의 기록³¹⁾이나 脫解王의 기록³²⁾에서도 匱, 櫃, 金合에 넣어 버려진다. 朱蒙도 棄兒이다.³³⁾ 그러나 이들은 그 棄兒의 고비에서 벗어나 행운이 인물이 된다. 이런 棄兒는 英雄神話의 한 모티프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通過祭儀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에게 주어진 棄兒는 一生의 어느 한 시기에 부딪히는 試鍊의 시기를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和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어린 아이로서 石匱에 담겨 버려진다는 사실은, 미지의 세계에 버려진 상태로 누구군가에 의해서 그 隔離狀態에서 受容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英雄神話에서는 受容者를 만난다. 그래서 시련은 극복되고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 堂神本풀이의 추방과 棄兒는 철저히 버려진 채로 끝난다. 결국 그들은 불행한 영웅이 된다. 시련으로서의 기아가 아니라 영원히 추방된 棄兒이다. 그들은 棄兒상태에서 受容者를 만나지만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추방당하여 방황하게 된다.

3.2.1.3. 하늘 玉皇에서 제주도로 定配당한 神들이 있다. 이들은 玉皇上帝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인간세상으로 定配케 된 것이다.

[9]……부도 명령 거역한시와 궁녀, 시녀(宮女, 侍女)들 물밥을 주어, 궁녀 시녀가 주려 죽으니, 상제(上帝)가 명령한시와 뜻을 인간으로 나가라 한시니,……(p.596) :

[10]……구월(九月) 초 오트넷날(初八日) 인간의 구경을 내려온 보니, 그 중 색조고할 방울(一粒) 두 방울을 섞어, 옥황(玉皇)으로 아방(父)국에 올라갔더니, 아방국이 「너는 인간 백성(百姓) 먹는 녹(祿)을 먹어시니 옥황(玉皇)에 돌 수 없다. 어서나고 가라.」(p.601)

[11]본풀이도 옥황상제의 말갯말이 부모 눈밖에 나서 인간으로 귀양당한다.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귀양당한 神들이 제주도에 와 坐定하였다는 것은 濟州島를 天上(玉皇)과 대칭되는 謫地로 보았던 때문이다.

[13]……금상님은 서울 동계강을 내뒀어서 전선(駁船) 한척(一隻)이 있거늘 당신 혼자 배(船)를 노리우고 혼자 양돛대(兩帆竿) 무나무(瑚) 양식(糧食) 짓밟짐 시켜서 백만군사(百萬軍士)를 거느려 피난처(避亂處)로 나간다. 열두 바당(十二海)을 지나타서 제주바당(濟州海) 들어올 때……(p.673)

[15]……: 아바님 살아나고 말씀하되 「너는 역적(逆賊)에 물려 이더 살 수 잇일 거니 어서 피난(避亂)하라.」 피난을 오논디 제주를 상(向)하여 오라……. (p.690)

31) 三國遺事, 卷 I.

32) 앞책, 卷1, 四.

33) 李圭報, 「東明王篇」에서 유화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난 알을 金雞가 불결하다고 버린다.

[13][15]본풀이에서는 서울에서 역적의 처지가 되어 제주도로 피난온다.

玉皇上帝의 명을 거역, 또는 그곳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여 地上(제주)으로 定配되었거나 逆臣으로 절해의 섬에 피난 왔거나 간에, 그것들은 모두 기존질서와의 갈등 때문에 집단과 隔離됨을 의미한다. 일반 神話의 隔離은 영원한 離脫과 分離가 아니다. 이를 계기로하여 새로운 세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행복한 시련이고, 인간의 삶의 한 起濼으로서 生動力을 더해준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또다른 回生을 약속한다는 것으로 인식 되어질 수 있는 상징체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 神話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의 神들은 영원히 낙원으로 歸環하지 못한 채 섬에 隔離되어 定配에서 풀려나질 못한다.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련의 定配가 아니고 영원히 추방당한 神이 되어버린다.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인간세계로 추방된 딸은 방황하다가 각시당 神이 되어 佛道로 위함을 받는 한 집이 되거나, [9] 인간세계에 탐심을 가진 죄로 추방당한 天地王의 아들은 제주시 오등 지경에 좌정, 만민자손들이 바치는 祭物을 받아먹고 살며 그들을 도와준다. [10] 그들은 天上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세계 구축에 참여하는 神의 권능을 상실한 채, 단지 救命圖食을 위하여 마을 사람들의 奉祭나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들은 靜止된 神으로 죽은 神이 된 것이다.

3.2.1.4. 天上界에서 인간세상으로 定配은 神의 來歷譚에 비해 역적의 처지로 귀양 또는 피난은 神의 이야기는 자세하고 그 플롯이 현실성을 띤다.

[14]의 금상남본에서는 출생부터 인간됨이 비상하다. 天을 아버지로 地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그는 天地和合의 결과임으로 人間界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九尺長身이요, 鳳眼, 삼각수염의 잘 생긴 외모, 갑옷 입고 偃月刀 七首劍에 무쇠로 만든 신을 신은 그는 바로 천하를 다스릴 名將같이다. 그러나 왕은 이 人物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는 힘과 능력으로는 王과 싸워 이길 수 있으나 순순히 잡혀 여러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濟州島로 피난을 오게 된다. 나라를 찾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자신의 保身을 위해 피난처를 찾아든 것이다. 그것은 경직된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함을 뜻한다. 時運을 타지 못한 不運한 人物인 날개달린 아기장수와 결국 同一한 神이다.³⁴⁾

그는 피난와서 天機에 의해 配匹로 정해진 백주와 결합하는데도 <장군이 먹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뤄지질 못한다. 장군의 모습을 갖고서는 제주에서는 정착할 수 없음을 그를 거부하는 세력(현실 상황)의 강함을 뜻한다. 그래서 백주의 계의에 의해 <장군이 먹던 음식을 거절하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결합한다.

「뜻죽 썬어 목가시라. (목욕하라) 즈수지(燒酒)로 목욕하라. 즈청취(淸酒)로 목욕하라. 청감

34) 아기장수형 전설은 전국적으로 廣布되어 있다.

취(淸甘酒)로 염집하다.(양치질하다.)(14)(p. 674) 이렇게 하여 백주와 부부가 된다.

여기에서 목욕은 <將軍의 氣>를 깨끗이 청산함을 의미한다. 장군을 거부하는 하나의 의식이요, 평범한 일상인이 되는 절차이다, 여기에서 피난처에서까지 장군으로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의 절박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렇게 변모할 수 없어 결국 불행한 神이 된다. 「흔들 두들 석들 열흘 백일이 넘어가니 피골이 상접하여 죽을 소경 당하여가니 백주님이 민망하여 <날ㄴ쁜 소녀 하나호로 天下名將이 주려 죽게 돼염시니 이런 담담이 어디 시랴> 하고는 천자에게 명하여 救命策을 강구한다.」(pp. 674~675) 장군으로서도 장군이 아니로서도 존립할 수 없는 萬藤과 不運이 그의 몰락을 가져오게 한다.

[15]본풀이도, 나라에서 역적으로 몰려 제주도로 피난은 神의 來歷이다. 黃정승이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다 하여 黃牛血을 받아먹으면 병이 낫게 되었으나, 그가 역적이므로 나라에서 피쟁이 도쟁이(屠匠)를 모두 잡아 버린다.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이 소를 잡아 黃牛血을 받아 아버지 黃정승에게 드리니 병이 치유된다. 그러나 그는 역적을 살린 죄로 역적이 되어 제주도 피난을 떠난다. 자식이 부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행위는 그 어떤 행위든 윤리적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성이 受容될 수 없는 現實狀況이 問題다. 사회가 얼마나 경직하였기에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병치유를 위한 일에 응하지 않겠는가 (p. 690)

제주도로 피난을 왔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그 당시 사회가 受容할 수 없어 거부하는 人物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질서가 생성될 수 있는 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濟州에 入島한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면서, 제주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시 道德律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³⁵⁾, 또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濟州百姓들의 意識體系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의식의 要諦는 抵抗이다. 추방당한 자들과 추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抵抗이고, 뜻을 펴지 못한 채 靜止된 神으로서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다. 바로 濟州百姓들은 이러한 不幸한 神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不毛의 역사와 폐쇄된 현실에서 살아 왔고 살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갖는다. 여기에 堂神과 民衆의 同一性(identity)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堂神본풀이가 民衆文學으로서의 意味가 있다.

3.2.1.5. 濟州堂神본풀이의 발단은 주인공들이 부모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거나 절대적인 힘에 의하여 定配를 당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堂神話의 모티브를 分析할 때, 주요한 본풀이 27話 중 죄아닌 죄로 石匣類에 담겨 추방 또는 유배 되는 경우가 20話에 달한다.³⁶⁾ 이러한

35) “본풀이의 形成과 內容”, (pp.181-3)참조.

36) 玄容駁,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 (國文學報 二號,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64), pp.96-97

주인공의 고난은 신화의 일반적 구조인 通過祭儀的인 성격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는 불운한 神으로 坐定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이 濟州 堂神본풀이의 특징이다.

또한 堂神본풀이에 나타난 <濟州>라는 地域性에 대한 상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10][11]본풀이에서 濟州는 玉皇인 天上과 상반된, 地上과 同一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서울(나라)과 상대되는 땅 濟州와 호응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棄兒의 장소와도 의미가 통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용이용왕, 스해용왕, 스시용왕, 동이와당, 서척밭에 띄워버리거나 내려버리는데, 이 龍王國은 地와 상반된 水國으로서 땅과는 絶緣된 空間을 의미한다. 이같이 극심한 <試鍊의 空間>은 다시 受容할 수 없는 영원히 隔離된 버림받은 땅이다 이 땅에 내버려진 神의 운명은 방황의 연속에서 安住處를 찾지 못한 채 육망의 渴症을 채우지 못한 虛飢 속에 怨神으로 변모 凶驗을 통한 救命圖食하면서 濟州사람들과 共生하는 실로 인간적인 神이 된다.

3.2.2. 救命圖食하는 神

3.2.2.1. 出生부터 부모들로부터 추방을 당한 神들은 끝없는 방황을 계속한다. 그 방황의 시간은 새로운 잉태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 厄>³⁷⁾이 아니다. 주인공들에게는 형극의 시간으로 죽음과 삶의 갈림길인 절박한 상황이다.

일반 신화에서 이와같이 추방당한 神들은 위기에서 구출되어 수용할 처지가 된다. 脫解의 경우, 龍城國에서 태어난 직후 버려진 후 바다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麗洛을 경유 신라에 당도한다. 그후 한 노파에게 발견되어 棄兒의 처지에서 벗어난다. 朱蒙은 金蛙가 불길하다고 알을 버렸으나 말들은 모두 그것을 밟지 않고 모든 짐승들은 그것을 잘 보호하여 다시 살아난다.³⁸⁾ 강가에 버려진 모새는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궁중에서 보호된다.³⁹⁾ 堂神본풀이에서도 버려진 아이들은 龍王國 말쑥 공주에게 발견 龍王國 사위가 되지만 다시 추방당한다.

[1]……「내 재간을 가지고 사위 하나 못먹이라.」 호연 쇠도 전머리 독도 전머리 석돌 얼플 맥여가니, 동창애(東倉暎)도 비여간다. 서창애도 비여간다. 요왕국이 말을 하대, 「이거 아니 팔로 구나. 널로 얻은 시름이니 드라아경 나고가라.」……(p.596)

[2][3][5][6]본풀이에서도 다시 추방당하는 연유는 비슷하다. 말쑥 딸에 의해 구조되어 재편입되려는데, 大食家였기 때문에 사위를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형편이어서 사위와 딸 모두 추방시켜 버린다. [12]본풀이에서는 풀뭇이 없고 그냥 <사위손 너미 불량(不良)하고 귀

37) 金烈圭, 說書, p.90.

38) 「東明王」篇에 群馬皆不履百獸皆擁衛.

39) 구약성서 출애굽기, 2章.

양정배나 마련^{ᄃᆞ}자>로 되어 있다.

棄兒, 追放의 상태에서 다시 재편입하려는데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에 처한 후부터도 그가 본래부터 가졌던 <大食에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먹는 욕망은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문제는 남보다 많이 먹는다는 특수성에 있다. 남보다 많이 먹어 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욕망의 극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 욕망을 버리지 않음은 현실과의 和合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2]본풀이에서 棄兒가 된 후 용왕국에 당도하여 작은 딸과 결합하여 상을 차려 들고 가나 거들며 보지도 않는다. 그 연유를 묻자, 「내 나라는 小國이라도 豚도 전머리 牛도 전머리 먹는 다」고 대답한다. 小國人의 大食은, 小國人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강한 탈출의 욕망을 表現한 것이다. 결국 그의 그러한 의지는 용왕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그의 부인과 함께 추방을 당한다. 그는 결국 제주도도 돌아와 豚祭를 받으면서 救命圖食한다. 이 豚祭의 意味는 島民들이 갖는 慾望을 大食家인 神에 대한 祭饑를 통해 극복하려는 심리적 보상행위이다. <가난 흔백성이 어찌 세를 잡아 위할 수가 있겠읍니까. 가가호호(家家戶戶)의 돛(豚)을 잡아 위로^{ᄃᆞ}겠읍니다.> 이와 같이 豚을 잡고 정성을 다하여 위하는 가운데 못다 이룬 욕망은 假象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그러한 大食의 神들은 결국 얻어먹는 神으로 전락한다. 위함을 받는 神들이 위해주는 자들이 없을 때,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정황이다. 大食에의 욕망은 坐定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坐定은 神의 活動의 靜止된 神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죽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奉祭를 받음으로써 그 배고픔의 慾望이 보상된다고 할 수 있다. 濟州堂神본풀이 神들은 철저히 얻어먹는 神으로 등장한다.

[12]……당구들 노넛뜰한집 뒤으로 당팃하르방 당팃할망이 왔수다. 허영 구물(網) 어장(漁場) 잘 도하여 췌가지고 구물(晦日) 열나을(十四日) 버리마제장계코스 돛(豚) 잡아 벳코스나 얻어 먹어 라.(p.615)

이와 같이 豊漁를 도와서 얻어먹는 神 외에도, 外祖父인 천자를 찾아 제주에 들어와 베릿물(硯水)이나 떠냥 얻어 먹으려는 神, [13] 大食 때문에 용왕국에서 추방당하여 다시 제주에 돌아왔으나 역시 너무 많이 먹는 고통 때문에 漢拏百官이 불쌍히 여겨서 諸民供糗 받게 하여 坐定한 神[3]들과 같이 虛飢를 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기에 <은(銀)도 마웨다. 금(金)도 마웨다. 땅 흔착 물 흔착 베여주면 구명도식(救命圖食) 호겠수다.>한다. 이들에게 절박한 것은 목숨을 연명하는 일이다. 그래도 이들은 행복한 神들이다. 누구도 거들며 보지 않아서 굶어죽는 神들도 있다.

3.2.2.2. 濟州島 堂神들은 결국 본능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神이 배고프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다. 역설이 사실인 것이 濟州島의 상황이다. 神들은 어떤 가나 화합할 수 없고 다시 추방되는 처지이다. 배고픔은 곧 생존에의 위협이다. 그리고 神으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빼앗긴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그들은 人間들에게 凶驗을 나타냄으로 생존을 도모하려 한다.

[2]……서로오둑(三八) 중단골 시물오둑(二八) 하단골 열두 풍문조해(風雲造化)를 불러주니 고래(高麗) 배 십방은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下達地理)해야……(p.646)

[13]……배주님이 일곱중치에 풍문조해(風雲造化)를 불러줘서 천주님이 상(床)을 받게 흉내 다.(p.669)

[14]……백주가 밤의 홀연히 돌러들어 암뽕 울려 목그치게 하고 큰 풀애기 승엄(凶驗) 주뽕 목이 딱차 죽게 되어 무녀 불러 문졸호죽……(p.675)

坐定한 사실과 그 후에 자기의 능력을 부락사람들에게 알려야 奉祭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凶驗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 이 이외에도 [3]에서 부모에게 조화를 부려 배고파 다시 음을 알리고, (p.757) 좌정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주일을 방황하여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자 凶驗을 내려 沓源里 마을에 온통 흉년이 들도록 한다.(沓源남당, p.658) 그러자 坐定할 곳이 마련되고 奉祭도 행해진다. [4]의 경우는 개인에게 마을에 疾病을 주어 凶驗을 보인다.(p.654) 溫坪, 新山本鄉堂의 경우 개인에게 風雲造化를 주어 神의 능력과 그 진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救命이 도모된다.

靈及이 좋은 神일수록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다. [7]에서 <子孫家庭에 열두 승엄(凶驗)주어 가민>(p.721) 奉祭를 받아오던 靈及 좋은 神이 드러난다. 이러한 凶驗은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동시에 神의 무서운 진노라 할 수 있다. 이 진노함은 저항의 다른 표현이다.

또한 神들은 凶驗 외에 마을 사람들과 <共生の 약속>을 통해 奉祭를 받기도 한다. [11]에서 자손들에게 祭饌를 받으면 그 대가로 자식을 낳게 하여주고 자손들을 많이 두게 해주겠다.(p.620)고 하며, 七, 十七, 二十七日에 床을 받아서 그 값으로 온갖 음, 종기, 이질, 배고픔, 아기 아픔을 걸어주는 神[6]도 있다. (pp.711~712)

추방되어 방황하면서 배고프기만한 이들 神들에게 가장 절실한 問題는 救命圖食하기 위하여 坐定할 곳을 정하는 일인데 이는 바로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安住의 욕망을 가장 절실히 형상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신(堂神)은 神의 아니고 神의 이름을 가진 바로 濟州民들이다.

3.2.2.4. 이제 이들 神들이 坐定한 경위를 살펴보면 濟州堂神의 모습이 더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이들은 아무도 坐定한 神이 없는 곳부터 찾아 坐定한다. 그것은 神이나 一般사람들이나 간에 住居의 편이와 생활 수단의 용이함 때문이다. 奉祭를 받을 대상이 있고, 서로 다투야 할 다른 神이 없어 그렇다.

[7]……얼누리(溫坪里) 수전개로 배(船)을 부쳐, 맹호부인(은평리 본향당신)에게 명암(名脚) 호장 더렸더니「이 마을(里)에 토지기관(土地官)이 하나이지 풀이 났 수 있어진다. 땅도 내 땅이요, 물도 내 물이여, 조손가정(子孫家庭) 내 조손이 꿰어지니 어서 나고가라」 「예, 어딜 가면 임계 잇는 마을이 있겠음니까?」 「해돋이 방 저 토산(兎山)을 가고보라.」……(p.714)

여기에서 坐定할 곳 때문에 분쟁하는 神의 모습과 임자 神이 없는 땅에 坐定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덕리本鄉堂(朝天面 橋來里)의 경우도 <듬배오름 坐定하여 천기지기(天機地氣) 집떠보니 덕리마을(橋來里)에 땅도 차지한 이 있어 그 마을 글조니(尊位) 정민장(警民長) 불러다……> (p.621) 이렇게 하여 마을 사람들의 내력을 묻고 그곳을 찾아하여 本土地官이 된다. 노을당(朝天面 臥屹里 本鄉堂)의 경우도 같다. 東福本鄉堂의 경우는 <부락(部落)이 잇일 때, 동북에 와서 글묵밧디 마을 실촌(設村)하고……>처럼 부락의 형성과 함께 神이 坐定함을 보여주고 있다. 神이 아직 마을에 坐定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主宰할 神이 없는 부락은 공동祭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부락은 아니다.

神들이 일정한 장소에 坐定하는 일은 숙명적인 사실로 인식된다. 天機地氣를 봐서(드러), 地血이 떨어진 곳에(下川·細花·表善), 世變을 막은 대가로 坐定 奉祭를 요구한 堂神들도 있다.

神들이 坐定은 생명을 보지(保持)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主宰할 곳에 坐定하는 것도 奉祭를 받기에 용이한 때문이요, 凶驗을 통한 神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도 坐定할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다음과 같은 본풀이에서도 배고픈 堂神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다. 오좌수 첩이 되었던 李氏 처녀는. 오좌수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의 무대접을 받으면서도 집 앞에 초막을 쳐서 貞節을 지키며 살다가 죽어 吳氏家에 凶驗을 주고 얻어 먹으며 살아간다. (호근이마루 오드렛당) 대정 形房은 할라산도의 말쑥말을 구제하여 데려 다니다가 馬石 위에 던져버리자 결국 잡육을 판장하는 神이 되어 정성을 받으며 살아간다. (好近里 本鄉堂)

이러한 堂神들은 虛飢를 채우기 위하여 坐定한다.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처지가 된 이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는 곧 마을을 이뤄서 定着하는 濟州民의 모습과 통한다. 그런데 이러한 神들이 救命圖食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신들의 生存에의 위험을 받게 될 때 怨神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 怨神의 대표적인 예가 蛇神이다.

3.3. 怨神(蛇神)과 濟州民의 恨

3.3.1. 怨神들은 凶驗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자기 구제를 도모한다. 怨神들은 상황의 준열함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욕망의 극심함에서 비롯되어진 神들이다. 이들 神의 대표적인 예는 表善面 兎山里를 중심한 소위 吳드렛堂系 본풀이〔7〕에 나타난 表善, 南元面 지역의 神들이다. 이들 堂神본풀이의 대표적인 것은 吳드렛堂 본풀이이다. 이 吳드렛堂神인 蛇神은 이 지역의 일부 부녀자들 사이에 신앙의 대상이 되어 하나의 民俗으로 잔존해 있었다.⁴¹⁾ 이제 이 怨神의 實相을 더듬어 뱀신앙의 의미를 찾고, 堂本풀이와 濟州百姓들과의 관계를 마무리지어려 한다.

3.3.2. 〔7〕본풀이는 牧使와 大蛇와의 갈등으로 시작된다. 羅州 錦城山에서 솟아난 이 神은 그 凶驗으로 牧使들은 부임하면 100일을 다 못채우고 죽어버린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大蛇의 凶驗이 큰 권력을 행사하는 牧使에게 미쳤다는 것은, 배고픈 神들의 救命圖食을 위한 凶驗에 비해선 강렬하다. 그러나 梁牧使에 의해 권력과 大蛇의 갈등 무쟁도 끝난다. 梁牧使가 大蛇를 退治하자 바둑돌로 變身 濟州에 入島한다. 大蛇의 變身과 濟州島 入島 사실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濟州 入島 모티브는 玉皇에서나 나라에서 죄를 짓고 추방이나 定配당하는 것과 같다. 패배하여 마지막 피난지인 제주까지 쫓겨온 것이다. 그러나 濟州에 入島해서도 試鍊과 挑戰은 계속된다. 下川리에 이르렀을 때 이곳 堂神인 개로옥서도가 兎山까지 쫓아오면서 그녀를 희롱한다. 그녀는 더러운 늪이 붙잡았던 팔목을 꺾어버린다. 그러나 그녀의 손걸이 용납받질 못한다. 兎山 메뚜기마루(地名)에 좌정하였는데, 용왕국에게 개로옥서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꾸중을 듣는다. 또 하나를 데리고 냇가로 팔래를 나갔다가 도둑들에게 정조까지 유린 당하여 怨神이 된다. 이 怨神은 일반 堂神처럼 救命圖食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뱀을 머금은 그녀는 그 恨을 자손 가정에 열두승엄(十二凶驗)을 주어가면서 전상을 받아낸다.

〔7〕본풀이 외에도 堂神들 가운데 凶驗이 극렬한 神들이 있다. 예촌(南元面 新·下禮里)許座首가 말을 탄 채 당 앞을 지나다가 凶驗이 붙자 堂神인 大蛇를 죽어버린다. 大蛇가 청비들기로 變身하여 怨神이 되어 許座首의 자손들을 씨없이 만들어 버리고 財產도 모두 잃게 만든다. (예촌本鄉堂)

그런데 그렇게 망한 許座首도 堂神과 같이 위하게 되었다 한다. 이것은 許座首의 蛇神이 인간들에 대한 부수를 무려워함 때문이지마는 실제로는 두 怨神(원망한 神, 원망받는 神)이 同

41) 濟州島蛇神 信仰에 대해서는 「韓國文化人類學」十輯, (1978)에 卓明煥, “濟州蛇神信仰에 대한考察.” 樂聖巖, “濟州島 뱀신앙”이 있다.

居를 통해 蛇神과 인간들이 共存·共生の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大蛇退治가 牧使에 의해 이뤄진 예는 金寧蛇窟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전설에서 牧使의 죽음은, 大蛇로 대신되는 민중의지와 退治者로 나타난 社會 權力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大蛇에 대한 祭儀는 일반 민중들의 자기구제의 한 방법이었다. 그러한 의식을 통해 大蛇와의 同一性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풍요일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다. 徐隣判官의 입장에서는 大蛇에 대한 祭儀가 하나의 民弊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식 百姓들을 구제한다는 그 명분을 통해 자기 권력의 飛翔을 시도하였다.⁴²⁾

일반본풀이와 蛇神본풀이의 차이는 堂神들의 원한이 蛇神본풀이에서 보다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대개의 神들이 救命圖食에 凶驗의 의도가 있었으나, 兎山으드렛 堂神系본풀이에선 怨恨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보상의 의미를 가진 凶驗이었다. 육체의 보전이 아니라 정신적 보상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기에 怨神은 일종의 몰락한 문화적 영웅(culture-heroes)이라 할 수 있다.⁴³⁾ 이런 면에서 兎山지역의 뱀신앙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3.3. 蛇神들이 堂神으로 坐定하여 마을사람들에게 奉祭를 받아 伸怨되고 그 값으로 마을(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예는 많다.⁴⁴⁾ 濟州島에서도 으드렛당의 堂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民俗信仰으로 蛇神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데 특이성이 있다. 여기에서 堂神본풀이에서의 大蛇變身과 그것이 주는 凶驗의 의미를 살펴 堂神본풀이의 특성을 규명하고 堂神에 대한 祭儀의 民衆的 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怨恨을 많이 가진 靈일수록 무속사회의 崇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정신적 상황을 말해준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怨靈이 많고, 원망스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속은 성해지기 마련이다. 제주의 뱀숭배 민속신앙은 이런 입장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濟州堂神본풀이의 性格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렇게 恨스런 堂神들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濟州百姓들의 精神의 狀況을 말해주는 것이다.

堂神들은 자신들이 救命圖食하기 위하여 凶驗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祭儀를 통해서 그 凶驗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怨靈에 대한 祭儀는 일종의 <厄贖>이라 할 수 있다. 怨靈(死靈)에 대한 祭儀를 통해서 <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자기의 원통함을 祭儀를 통해 怨靈에게 投射함으로 극복하려는 祭儀者의 적극적인 행위이다. 죽은 자의 怨恨을 다스리기 위하여 怨記를 올리면서, 生者는 사실 자기 자신의 怨恨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死靈祭는 一次的으로 死者를 위한 것이나 二次的으로는 生者의 무의식으로 떨어져 나간 自律의 心復合

42) 李符永, “두꺼비와 韓國人의 無意識”, (文學思想, 1972. 12) 참조.

43) A.R.Radcliffe-Brown, ed., op. cit., “The Sociological theory of totemism”, (p.126)

44) 東海岸 注文津서낭, 해랑당 전설과, 忠濟南道 靑陽郡 노무목祭堂 등.

(autonomous complex)을 소화하여 처리하는 치료의식이다.⁴⁵⁾ 곧 怨靈의 恨은 生者의 恨이다. 그러므로 濟州堂神본풀이에서 主人公의 恨은 바로 濟州民의 恨이다.

이렇게 자기 生을 진정으로 살지못하여 이뤄진 恨이 축적이된 殘滓感情(gef ühlsrest)이⁴⁶⁾ 집단무의식화 되어 堂本풀이를 이뤄놓았던 것이다. 濟州百姓들은 祭饑를 통한 蛇神숭배로 怨神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怨靈의 神과 만나며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대극과의 결합(conjunction opposition)을 체험하는 자기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⁴⁷⁾ 그러므로 濟州島에 있는 蛇神 숭배의 민속은 신앙이 아니라 怨靈을 달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구제의 한 방법이었다. 蛇神의 극력한 凶驗(절망적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蛇神들의 존재를 깨닫고 그들 무의식 속에 자리 잡혀진 자기들의 공통된 怨恨을 되살리게 된다.⁴⁸⁾ 여기에 祭饑를 통한 자기 인식이 가능성이 있다. 뱀은 집념이요 정욕을 상징한다. 怨神들의 좌절된 욕망이 뱀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

뱀은 정신적 에너지의 형상(Carl. G. Jung) 이라고 한 점은 이것과 통한다. 蛇神숭배는 人間의 무한한 욕망에의 祈願이다. 그것은 버림받으며 불행하게 살았던 濟州百姓들의 무의식의 소산이다.

이런 의미에서 金事蛇窟說話는 민중의 의지로 대신되는 堂神과 현실적 권력 의지와와의 갈등 투쟁을 보여준 것으로, 徐隣 判官이 죽음은 민속신앙을 통한 민중의지가 권력의지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牧使는 애초부터 뱀을 퇴치한 것이 아니라 凶驗이 극심한 堂神을 退治해 보니까 그것이 뱀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⁴⁹⁾ 이는 兎山드렛당본풀이와 예촌본향당본풀이와 같은 怨神인 蛇神을 숭상하는 巫俗信仰이 절대권력의 상징인 牧使와의 갈등 투쟁에서 승리라는 점에서 島民들의 끈질긴 抵抗精神을 동반한 삶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3.4. 濟州民의 存在樣式

堂神은 한 부락의 정신적 支柱이며, 堂神본풀이는 神의 본풀이면서 동시에 그 부락민들의 내력담이다. 그러므로 祭饑 때 본풀이를 통하여 堂神과 民衆들은 同一體가 되는 정신적 경험을 갖게 된다. 濟州島 堂本풀이에는 추방된 神으로서의 원망과 虛飢에 놀려 살아온 신들의 일생이 나타나 있다. 이들 갈등과 원망의 神들은 부락사람들에게 奉祭를 받아 救命團食하면서 그

45) 李符永, “鬼靈現象의 分析心理學的 理解”,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社, 1976), p.314.

46) 李符永, “怨靈과 恨의 心理”, 『傳統藝術과 民族藝術』, (民音社, 1980), p.107.

47) 앞글.

48) 앞글.

49) “두꺼비와 韓國人의 無意識” 참조.

값으로 부락을 보호하고 주관하는 共生同居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濟州島 堂神의 恨스런 일생은 바로 濟州民의 精神的 狀況과 현실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들은 祭儀의 본풀이를 매개로 하여 자기를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자신의 비극을 극복하는 체험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堂神본풀이는 바로 제주민의 存在樣式이다.

濟州島 堂神본풀이의 서사구조는, 고난과 그 극복이라는 신화적 질서에 놓여있지 않고, 고난 그 극복, 방황, 몰락이라는 비극적 구조를 가져 전설과 상통한다. 고난에서 극복하여 자기를 구원받고 새로운 세계에 편입 참여하는게 아니라, 다시 추방되어 방황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坐定하여 奉祭를 받는 슬픈 神으로 몰락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堂神들은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삶의 방법을 찾는다. 여기에 실로 인간적인 神의 모습이 있고 신화로서의 리얼리티가 있다.

이러한 虛飢와 挫折의 堂神들에 투영된 濟州百姓의 의식은 恨스러운 抵抗이다. 그것은 곧 삶의 진지성과 통한다. 이 抵抗과 한스러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본풀이에서는 죽은 神으로 좌정하여 島民들과 共生하는 소극적인 자세였으나, 그에 대한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島民들의 心性에 자리잡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좀 더 현실성을 띄면서 인간의 이야기로 구체화 된다. 이것이 바로 人物傳說이다.

Ⅳ 壯士의 一生

4.1. 濟州傳說에서 人物傳說의 위치

濟州島 人物傳說의 大前提는 高宗달[胡宗旦]型傳說에 있다. 濟州島가 王候之地임을 안 中國王(또는 高麗王)이 風水士 高宗달[胡宗旦]을 濟州에 파견 地穴을 단막해 버린 결과 濟州에는 生수(泉)도 인물도 나지않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 傳說은, 濟州의 地理的 歷史的 不毛性을 설명하면서 濟州人의 運命에 대한 決定論的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전설은 고난과 좌절을 체념과 저항을 통한 自己愛로써 극복하여 살아가는 濟州島民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면은 아기장수형전설이 濟州 變異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평범한 서민 家系에 날개달린 비범한 장수아가기 태어나자, 역적이 될 것을 우려한 부모(또는 이웃)들이 아기를 죽여버리자 龍馬가 나와 울다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龍沼(말무덤) 등이 생겼다는 것이 장사 전설의 개요이다. 이 전설은 폐쇄된 사회 상황에서 거부당해야 하는 아기장수의 비극을 형상화한 것이다. 즉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력을 거부하는 전통 사회의 경직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이 유형 전설의 특징이다.

그런데 濟州島의 變型은 꽤 대조적이다. 아들에게서 날개를 발견한 그 부모들은 아기의 날개만을 제거해 버리자, 아들의 힘은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장사로서 세상을 살다 죽었다는, 실제 장사의 一生譚이면서 비극성이 많이 극부된 점이 특이하다. 즉 제주의 아기장수전설은 날개달린 아기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天上으로 飛翔하려는 욕망의 상징인 날개만을 제거하고 地上의 人間으로 回歸시키면서, 사회가 거부하는 人物을 受容하는 인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삶이 진지성을 보여준다. 옳은 뜻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펼 수 없는 사회 상황에서 태어난 영웅이나 장사가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한 방법을 보여준다.

濟州島의 壯士 異人傳說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대략 ① 날개 달린 아기장수형 전설 ② 오취 힘내기형 전설 ③ 壯士전설 ④ 女傑전설 ⑤ 異人전설 ⑥ 諧謔的 人物傳說 등이 있는데, ①, ②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③을 중심으로 해서 壯士의 一生에 투영된 濟州島民의 精神的 片貌를 살피려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堂神본풀이에 나타난 島民의 식이 傳說에서의 변모 양상도 아울러 고찰하려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전설을 대상으로 하였다.⁵⁰⁾

- [1] 막산이 전설 (상호①, 토명②, 하원③, 중문④)
- [2] 논하니 전설
- [3] 정운디 전설
- [4] 새샘이 전설
- [5] 십돌부대각 전설
- [6] 한연한배임계 전설
- [7] 오찰방 전설(토명①, 하원②, 안성③, 중문④)

濟州島의 壯士傳說을 그 주인공의 신분 계층별로 구분할 경우 (A) 奴僕장사와 (B) 一般장사로 나눌 수 있는데, (A)는 막산이, 논하니, 정운디, 새샘이 전설이고 (B)는 날개 달린 아기장사, 오취 힘내기, 오찰방, 십돌 부대각, 한연한배임계 등에 대한 전설이다.

(A)전설은 大食家이면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일을 해내는 奴僕들이 결국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추방되어 도둑질 등을 하면서 살다가 굶어죽거나 잡혀죽는 불행한 장사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50) [1]~[9]는 편이를 위해 정한 전설번호이며 한 인물에 대한 전설 중 수집 장소에 따라 ①②...로 구분 처리하였다.

이 전설들은 「濟州島傳說」(璠文堂)과 본인이 수집한 것들임.

반면 (B)형 전설에서는 작은 벼슬길에 오르거나 또는 육지부와 무역을 하면서 해적들과 육지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세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면서 濟州民의 日常的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A)형이 전설에서 중요한 문제는 壯士의 虛飢와 挫折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나, 항상 배고픔 속에 번번한 일도 하지 못한 채 종으로 살다가 추방되어 굶어죽는 이들의 一生譚은, 堂神본풀이에 나타단 虛飢와 挫折을 그대로 再現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2. 虛飢와 挫折(막산이型 傳說)

여기에서 [1]~[4]전설을 통하여 壯士인 奴僕들의 不運한 一生을 살피고 濟州民의 精神的 片貌를 찾아보려 한다.

4.2.1. 종의 신분

그들은 모두가 종이었다. 종은 不運한 계층이고, 억압받는 계층이다. 이런 종의 신분으로서 장사이며 大食家라는 비법성이 곧 갈등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버림받는 인물이 되게 한다. 이런 人物들의 이야기들을 <막산이型 전설>이라고 편이 하게 명명하려 한다.

[1]전설은 口述者에 따라서 막산이를 옷귀(南元面 衣貴里) 慶州金宅(①·②), 蒼川姜宅(③) 中文 李座首宅(④) 종으로 되어 있다. 또한 [2]전설에서는 논하니가 옷귀 慶州 金宅 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막산이와 논하니는 같은 인물일 수 있으며, 또한 막산이가 여러 집의 종으로 전전하며 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집안에 힘이 세고 일 잘하는 종들에게 막산이 모티브가 결합되어 이같이 여러 전설을 이뤄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전설은 安德面 沙溪里 李宅 종이다. 새샘이는 막연히 종노릇을 했다고만 한다. 이들도 모두 종이었다.

4.2.2. 壯士와 虛飢

이들 壯士인 종들은 항상 배고픔을 견디며 살았다. (①) 그러기에 도둑질을 잘했다. (④) 배가 커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다. (④) 남의 소를 잡아먹고 살았다. (③) 종노릇하여도 배를 채울 수 없자 제주 대정 간 교통의 요새지에 잠부하여 도둑질을 전업으로 하였다. [4]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에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 50~100명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혼자서 몇 시간만에 해치운다. 그러한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은 막산이형 전설의 인물 특징이다. 또한

그렇게 일을 잘 해도 역시 배고프다는 사실이 이 전설의 요체이다.

막산이가 하였던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산디(陸稻)를 갈아 거뒀을 때 100명 분의 점심을 몽땅 혼자서 먹고 일도 혼자서 해치운다. (①) 1정보쯤 되는 조밭에 베어 놓은 조를 잠깐 새에 전부 묶어 100여 미터 떨어진 집 울안으로 던져 놓아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④) 100명 몫의 논밭일을 혼자서 해치운다. (③) 2만여 평 되는 牧草밭 풀을 다 베어 놓고 (100여명 몫) 50여명 정도여야 묶을 일을 혼자서 해낸다. [2] 제삿날 초저녁에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제사 전에 옥도를 다 비어 놓았다. [2] 막산이나 논하년의 일은 주로 밭일, 들일, 논밭일 등인데, 이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실정에 따른 것으로 논이 있는 지방의 이야기는 논일로, 중산간 부락의 경우(웃귀 金宅) 옥도 끝밭 일로 되어있다.

[3] 전설에서 정운디는 나막신 신어 산방산(安德面 沙溪里境)에 올라 나무 베어 방아를 만들며 머리에 써서 가져올 정도의 힘을 가졌고, 열두 사람이 목도로 들어도 못 움직일 바위를 옆구리에 끼고 던지고, 20여명이 들어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바위를 혼자 옮겨놓는 힘을 가졌다.

새샘이도 그러한 정운디를 이길 수 있는 장사였다. 이들은 모두 초인적인 힘의 소유자들이다.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나 大食家였기 때문에 항상 배고픈데서 갈등이 있다. 大食家の 배고픔, 이것은 의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의 재시이다.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이것은 非凡人을 수용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은 평민의 家系에서 태어난,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갈등 양상과 같다.

4.2.3. 추방과 죽음

부지런히 일하고 먹을 만큼 일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추방당하여야 한다. 누구도 大食家인 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을 먹이다가 주인 집까지 망할 형편이다. 이는 종과 주인이 화합할 수 없는 관계로서 버림받은 계층, 同類할 수 없는 계층의 비극을 심화한 것이다. 堂神본풀이에서 용왕국이 大食家인 사위를 먹여 살릴 수 없어 추방해 버리는 모티브와 같다.

웃귀 慶州 金宅에서는 막산이를 먹일 수 없으니까 大靜 베염바리집에 팔아버렸는데, 그 집에서도 역시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독한 술을 먹여 죽여버렸다. ((1)-①) 이는 주인 집에서 쫓아내자 들에 있는 주인네 소만 잡아 먹으면서 살다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다. 蒼州 姜宅이 바로 大靜베염바리집이다. 또는 翰京面 지경에 가서 도둑이 되었다가 결국 굶어죽는다. ((1)-④)

[1] 전설에서 막산이는 결국 주인집에서 쫓김을 당한 후 도둑질 등으로 연명하다가 타의에 의

해 또는 스스로 죽는다.

[4]전설에서 새샘이도 종노릇하여 살았으나 배가 고파 결국 도둑이 된다. 도둑질하여 민폐가 심하므로 판(大靜縣)에서는 힘이 센 정운디에게 잡도록 한다. 그래서 그에게 잡혀 죽는다. 도둑은 사회와 화합할 수 없는 인물이고 사회와의 갈등의 심화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둑질을 해서라도 생명을 부지하려는 것은 자기 상황에 대한 탈출이고, 사회에 대한 저항이고, 새로운 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것이 갖는 不道德性은 도둑질을 하는 자의 입장에선 副次的인 것이다. 생명의 본능은 순수한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사회의 규범이다. 여기에 다시 갈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받아들인다. 죽음은 갈등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50~100명 먹을 몫을 먹어야만 배가 차는 그가 살 곳은 없다.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사회의 不在, 이것은 바로 경직된 사회 현실의 상징적 표현이다. 堂神본풀이에서는 凶驗을 보여 마을 사람들에게 奉祭를 받도록 하여 연명하였으나, 인간의 이야기인 전설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4]전설에서 정운디는 배고픔 때문에 官에서 주는 補賞을 받아 虛飢를 채우고 새샘이를 잡아 죽인다. 배고픔이라는 이 본능적 욕구가 같은 종의 신분인 새샘이를 죽이도록 만든데 장사의 비극이 있다.

이들 장사들의 죽음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한 때문이었다. 막산이에게 술을 취하도록 먹여 두 팔과 다리를 말뚝에 묶어 박아서 굶겨 죽이려 할때, <날 일부러 죽여버림주마는 후엔 생각 날 때가 있을 거여>하고 ((1)~①) 순순히 응했다. 장사인 그가 그 말뚝쯤 빼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후였다. 자기를 분명히 인식한 것이다. 정운디에게 잡혀 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던 새샘이는 숨어 있던 정운디 칼에 팔을 잃고는, <헐 수 없다. 내 운이 떨어졌다. 어서 잡아라.>하고 순순히 다시 붙잡힌다. 이와같은 현실 상황의 순응은, 자기를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을 절실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 뜻을 펼 수 없는 恨스러움을 동반한다. 초능력자인 장사들은 사회에 受容될 수 없어 결국 영원히 추방된다. 여기에 장사의 좌절이 있고 悲劇이 있다.

4.2.4.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은 상황과의 끝없는 갈등 투쟁가운데서 세상을 살다가 상황을 극복 승리하는 게 英雄說話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아기장수 전설은 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해 몰락하고 만다. 그런데 막산이형 전설에서는, 壯士가 虛飢에 헤매다가 挫折 몰락한다. 그를 受容할 수 없는 한 뼉의 땅도 없기에 그는 상황과 대결을 시도하나 결국 몰락한다. <중>이라는 신분과 大食家라는 본능적인 過大欲望이 그들의 存立을 거부한 것이다. 중이라는 社會的 身分은 大食家라는 경제적 풍요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과잉된 욕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는 사회가 용납하질 않는다. 신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욕망과 행위를

계약한다. 그러므로 그 욕망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그 길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 虛飢로 대신되는 욕망은 또한 가장 절실하면서도 진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挫折당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폐쇄된 사회 속에 살다가 죽은 비극적인 <壯士의 虛飢와 挫折>의 전설은 끝없는 욕망속에 새로운 탈출을 시도하며 방황하다가 挫折하는 濟州民의 이야기다. 이러한 虛飢와 追放과 挫折의 이야기는 바로 堂神본풀이의 시대적인 變容으로서 <부지런히 일하다 항상 배고픔 속에 살다가 죽어간> 恨스러운 인간들을 그리고 있다.

이 恨스러움은 50명~100명이 먹을 점심을 혼자 다 먹고 神처럼 일을 한다는 과장된 허구 속에 밀도있게 나타나 있다. 大食家요 일을 잘 하는 중에 대하여 이와같이 허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生存에의 본능과 그의 非凡性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非凡性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의 죽음의 비극은 더욱 강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전설에의 일반적 구조인, 비극을 보상받을 수 있는 傳說的 驚異도 없다. 오직 민중들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막산이에 대한 연민만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막산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여러 사람들의 막산이로 만든 것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고정된 막산이에 대한 경이적인 관심이, <힘이 세고 일 잘하는 추방된 어느 불행한 종의 이야기>에 接合되면서 전설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다. 즉 島民의 가슴속에 도사려 있는 막산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막산이型 전설을 만들 수 있었다.

4.3. 섬(島)complex에 대한 解放의 意志

濟州說話의 바탕에 흐르는 濟州民의 의지는 서러운 抵抗이다. 여기에 후 화합의 의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抵抗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서러운 저항은 버림받아 방황하다가 좌절하여 救命圖食하는 마을 堂神본풀이 주인공들의 모습과 배고픈 장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하여 구체화 된다.

그런데 說話에 나타난 濟州民의 모습은 모두가 것처럼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삶이 형상화된 전설들이 있다. 그들은 절정지워진 문명에 대하여 우선 끝없는 抵抗을 시도한다. 그것의 단적인 예는 바로 섬(島)complex에서 解放하려는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섬이란 지리적 조건은, 濟州 역사에 대한 決定論의인 의식을 남게하여 고종달[胡宗旦]型 전설을 이뤄놓았다. 虛飢와 追放의 美學으로 일관된 堂神본풀이도 그러한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壯士傳説(B)에 외서는 그러한 敗北의 美學이 거부되고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도전과 대결을 시도한다. 앞서 말한 아기장수型 傳説이나 오뎁대기型 傳説에서는 삶의 진지성이 형상화되었다면, 이제 생각하려는 심돌부대자 傳説[5] 한연한배임계 傳説[6] 오찰

방 傳說〔7〕에서는 壯士들의 抵抗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삶의 樣式을 보여주고 있다.

이 傳說들은 모두 힘이 壯士인 비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로서 힘으로써 갈등적인 요인과 대결한다. 심물〔城山面 始興里〕에 사는 夫대작은 한연 한배임제와같이 장사치로서 육지부와 교역을 하는 신분이었고, 오찰방은 武官으로서 察訪 벼슬까지 한 역시 장사였다. 이들은 장사치요 벼슬아치로 자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면서 本土사람들을 힘과 道術으로써 제압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부대작과 한연 한배임제는 힘으로, 오찰방은 術手와 機智로 대결하여 승리한다.⁵¹⁾

4.3.1. 힘과 힘의 대결

〔5〕傳說은 심물에 살았던 夫道生이란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고, 〔6〕傳說 역시 舊左面 東金寧里 韓宅의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이 두 傳說은 힘의 대결을 통하여 濟州 사람이 갖고 있는 섬(島)complex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6〕傳說은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① 蜈蚣之穴의 빛자리에 조상을 모신 韓宅에서 겨드랑이에 날개 돋은 장수아기를 낳게 되었다. 부모들은 역적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손가락을 불에 달구어 날개를 지저 버린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않고 장성하여 장사가 되었다. [출생과 성장] ② 그가 성장하여 육지부와 교역을 하게 되었는데 海賊들을 제압하였다. [해적제압] ③ 진도 벽파진에서 군중들을 제압하는 바람에 역적으로 오인, 감영에 집혀갔다가 반명되어 나온다. [힘의 과시]

〔5〕傳說은 〔6〕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②, ③의 내용은 비슷하다. 그러나 斷脈 傳說에서 보면 夫氏都先墓가 장군기를 타고 났기 때문에 그 자손 중에 장수가 날 것이었는데 이를 안 판가에서 장군혈을 뚫어 버려, 결국 그 이후 몇 해에 한 번씩 장사만 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자손이 바로 부대작이다.⁵²⁾ 그러므로 부대작 전설에서도 한연 한배임제와 같은 그의 출생모티브를 갖고 있다.

夫대작은 미역 등속을 받아다가 육지에 가서 팔고 대신 무곡을 사다 파는 무역에 종사하였는데, 역시 해적을 만나 그들을 제압한 삽화, 강경 장관에서 그곳 청년들을 힘으로 제압한 삽화로 엮어져 있다.

〔5〕〔6〕傳說 모두가 육지부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육지부 사람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데 단지 장소와 디테일이 다를 뿐이다. 두 전설이 중요한 내용은 <해적과 싸워 승리한

51) 선비로서 육지 사람들과 대결 승리하는 전설에는 “가령 梁장이” 전설이 있고, 권력에 대한 대결 승리하는 “변인태” 전설이 있다.

52) 1980. 1. 20. 城山面 始興里 梁基彬(남. 75) 口述

다.〉 〈육지 사람들과 대결하여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제주 사람이 本土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던 현실적인 문제를 두 개의 모티브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육지와의 교역이 빈번하게 행해지던 당시, 남해안에 들끓던 해적들은 濟州民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농토가 척박하여 곡식 생산량이 수요를 못따르던 당시 실정에선 육지부의 쌀을 사들이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더구나 흉년이 자주 들어 기근이 극심하던 당시 상황으론 해적의 문제는 島民들에게 심각한 갈등적 요소였다. 또한 제주 특산물의 進上에 따른 해상 운송은 進上品을 마련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었다. 그리고 濟州民들이 육지부와의 관계에서 本土民들에게 받았던 지역감정의 문제도 심한 갈등적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설들은 濟州民對 本土人, 濟州民對 海賊이라는 갈등관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모두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극복하게 된다.

다리 만큼 굵은 한뎛(뎛줄)을 맨손으로 바드득 무지러 끊어 머리머를 벽 두르고, 다시 바드득 무지러 두 정강이의 바지 가랑이를 올려뎛었다. 그래서 좁쌀 25알씩 넣어 묶은 떡서리를 한 손으로 잡아 던지기 시작했다.……水賊의 배는 물 위에 뜬 나무잎사귀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바닷굴 속으로 점점 잠겨가기 시작했다.(6)⁵³⁾

해적들을 만나 제압하는 내용은 심돌부대각의 경우도 비슷하다. 〈무곡 떡서리 던지기〉, 〈뎛줄 끊어 허리머 베기〉 등의 모티브가 초월적인 힘을 형상화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해적들을 이렇게 제압했다는 사실은, 당시 육지부를 왕래하던 모든 장사치들의 소원이었던 일이므로 두 장사의 이야기는 충분히 전설화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연 한배임재나 부대각에 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다니며 육지부와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 島民의 이야기로서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향유하던 중에 濟州民의 狀況克服의 意志를 생각하게 한다.

濟州民의 complex의 하나는 육지 사람과의 갈등에서 연유된다. 追放과 不毛의 땅 濟州에 대한 육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했느냐는 것은 그만 두교라도, 오히려 이편에서 그것에 대한 갈등이 극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두 인물은 초월적인 힘에 의하여 이 complex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제주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 갈등은 비단 지역감정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육지라는 개념은 〈中央〉이라는 의식 속에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버림받은 땅의 반대 개념으로서 육지는, 濟州民들의 의식 속에 對峙의 관계에 있게 된다. 行政의 不在, 政治의 不在, 백성으로는 해택을 받기보다는 수탈을 더 당했던 처지에서 그들은 야속한 존재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힘을 과시함으로 육지 사람들을 제압한다. 한쪽에 50명씩 들어 목도질을 해야 겨우 한 치를 띄울 수 있

53) 「濟州道傳說」, (p.188)

을까 말까한 닳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휘 던져 버리거나,〔6〕 수십 명의 강경 청년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한다.〔5〕

제주 하향 섬놈이 어디 우리 강경 장관에 오라가지고 너무 거들거리니까 이놈 어디 혼변 봐야겠다 혼게 아십니까……수십명이 혼 부대를 꾸며가지고 손에는 장작개비를 들고 들어오라가니……道生씨 부장군 그 양반은 뺨안에 앉았다가 그 아들이 그 사람에게 비는 걸 보고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는 아들을 불러서 “죽으면 죽었지 남에게 그런 애걸을 하면서 하찮은 목숨 살아서 뭘 할 것이냐”……당신은 댁 들어 앉아가지고 벽장에 등을 댄 불이고(몸짓) 이렇게 앉아서……여덟이 와서 등을 때라고 해도 눈시 동기지 못하여……열이 들어 가지고 마당드래 꼬집어 내쟁하여도 데인 등을 때지 못하더라고.……⁵⁴⁾

육지 출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장사치들의 삽화는 한 개인이 이야기가 아니다. 島民의 마음 속에 늘 간직되어 있어서 향유되는 가운데 島民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즐기는 중에 사람들은 제주도 장사들의 꿈을 생각한다.

4.3.2. 峻嚴한 復讐

〔7〕 傳說에서 壯士들은 挫折에 대한 극복을 峻嚴한 復讐를 통하여 이뤄놓는다. 不當한 패배에 대한 이러한 행동은, 패배하기만 하여 살았던 島民들의 實相이며 한스러움인데, 이를 복수를 통하여 카타르시스하고 있다.

오찰방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이였는데, 그 부모네가 그것을 숨겨두어 역시 장사로 성장하였다. 그는 벼슬이나 하려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마침 나라에서는 큰 도적(혹쇠 탄 도적)을 잡는 자에게 큰 포상을 하겠다고 방을 불이고 장수를 찾는 중이었다. 오찰방은 이 도적을 잡는데 성공한다.〔7-①〕에서는 그냥 <서울 가서 선봉산 나가서 어디서 승군(勝軍)하고 들어온 때에>로 간단히 처리하였으나,〔7-②〕에서는 힘으로 그와 당하지 못 할 처지이므로 기지를 부려 잡았다고 되어 있다.〔7-③〕에서는 도둑이 天機는 쫓아보니 제주에 사는 뜻 아무에게 죽게 되어 있어서 그냥 목을 내어놓아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서 말을 달려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제지하는 자가 있었다.

제가 승군하고 들어오지마는 제웃놈이 말타고 그대로 배문 안으로 들어선다고 하니 그만 슬쩍 물 아래로 누렸단 말이여.①

……나라의 장군은 임금 앞에서도 물을 타는데 어느 뎨 어뎨 물을 탄 궁궐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영의정이 범물을 못한다 하니 그냥 슬쩍 돌을 부렸거든……②

54) 梁基彬 口述. 심동부대각 전설.

……장안에서는 제춧놈이 무서운 도둑을 잡아온다고 야단들이었다. 오찰방은 궁중으로 말을 몰아 들어가려 했다. <이놈 제주놈이 말을 탄 채로 어딜 들어오려하느냐!> 호통소리가 떨어졌다. 오찰방은 역시 좁은 데서 난 사람이라 마음이 졸해서 얼른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다.③
(加點：필자)

승전 장군으로서 몇몇하게 왕 앞에 나가서 치하를 받고 방에 난 대로 千金賞萬戶賞을 받았어야 할텐데 제주놈이란 점 때문에 겨우 察訪 벼슬을 얻었는데 그쳤다. 이는 제주사람이 官界 진출의 어려움과 사회적 활동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찰방은 이에 극심한 갈등을 느낀다.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통하여 그 갈등에서 벗어나려 한다. 겨우 察訪 벼슬을 얻었다는 것도 분한 일이지만, 제주사람에 대한 차별이 더욱 분한 것이다. 그는 복수 계획을 세운다.

하루면 浦口까지 갈 수 있었지만⁵⁵⁾ 보통 사람같이 하루길씩 걸어 客舍에 묵으면서 며칠만에야 포구에 당도한다. 그날 저녁에 주인과 손님들이 다 잠든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말을 타고 入宮하지 못하게 한 그를 죽이고 다시 그날 밤 안으로 내려와 잠을 잔다. 뒷날 정승의 죽음이 알려지고 오찰방이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아리바이가 성립되어 완전 범죄에 성공한다. 결국 그는 術數로 통쾌한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나막신 신고 산방산을 오른내리는 위인, 온 나라 장군들도 잡지 못하는 도둑을 잡고, 한두 시간에 천리 길을 갔다오는 초인적인 능력이 소유자였으나, 제주 사람이란 결정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察訪 벼슬밖에 할 수 없는 非理에 대하여 峻嚴한 抗拒를 한다.

한두 시간에 서울로 올라가 그 정승을 죽이고 돌아온다는 이 道術적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군의 의식은 바로 濟州民의 의식이다. 패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狀況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패배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통하여 바로 濟州民의 의식을 대변한 것이다.

4.4. 挫折과 抵抗의 삶의 樣式

濟州島의 人物傳說是 濟州民의 挫折과 抵抗의 삶의 樣式을 구체적인 인물(壯士)들의 일생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현실의 여러 갈등에서 패배하여 安住할 수밖에 없는 것은 濟州島民들의 고정된 의식이다. 勝·敗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濟州民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적인 상황이었다. 막산이型 傳說에서는 壯士의 극심한 挫折을 통해 현실의 非理에 대한

55) 오찰방은 축지법을 썼다. [7]-① 나는듯한 사람이었다. [7]-②고 口述된다.

恨스런 抵抗을 볼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삶의 樣式은 一般 壯士傳說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決定論的인 運命에의 탈출을 시도하는 島民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壯士傳說을 가능하게 하였다. 힘과 能力으로 濟州民의 氣慨를 과시하고 本土人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모티브가 실제 인물과 接合하여 여러 壯士傳說을 만들어 낸 것이다.

- 모 티 브 들
- | | | | |
|------|--------|---------|--------|
| ① 통수 | ② 아기장수 | ③ 해적제압 | ④ 힘겨루기 |
| ⑤ 道術 | ⑥ 복수 | ⑦ 오누힘내기 | |
-

- (1) 심돌 부대각 전설 ← 壯士 夫氏 + ② + ④
 (2) 한연 한배임재 전설 ← 壯士 韓氏 + ① + ② + ③ + ④
 (3) 吳察訪 전설 ← 壯士 吳氏 + ② + ⑤ + ⑥ + ⑦

이외에도 서울 사람들과 官屬들을 기지와 해학으로 제압하는 전설에서 抵抗의 한면을 찾을 수 있고, 女傑傳說, 異人傳說에서 濟州民의 삶의 방법들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傳說을 통한 濟州民의 精神探究는 이런 작업이 계속 되어 종합하는 데서 可能한 것이다.

V. 抵抗과 삶의 眞摯性

5.1. 濟州說話에는 그 時代를 살았던 濟州民의 생활의 실상이 진솔하게 投影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 濟州民의 存在樣式을 파악하여 보았다.

堂神본풀이는 각 마을 주민들의 祭饌를 통해 生成·成長해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堂은 바로 그 부락 사람들의 정신적 集結體이다. 여기에서 본풀이를 통해 부락민들은 堂神과 同一體의 精神的 體驗에 들어갈 수 있다. 즉 堂神본풀이는 堂神과 마을 사람들의 來歷譚이다.

5.2. 堂神본풀이에는 버림받고 추방된 神들이 怨望과 虛飢속에 살아온 일생이 나타나 있다. 이들은 葛藤과 怨望 속에 배고픔에서 헤어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凶驗으로써 자기 존재를 인식시켜 奉祭를 받으면서 救命圖食한다. 이러한 恨스런 神의 모습은 濟州民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島民들은 祭饌 과정에서 본풀이를 통해 자기와 濟州歷史를 인식하고 자기의 비극적 정황을 극복하는 체험을 갖게 된다. 여기에 恨스런 抵抗이 있고, 삶의 眞摯性이 있다.

5.3. 이러한 抵抗은 島民들의 心性에 자리잡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좀 더 현실과 밀착하여 人物傳說을 이뤄놓았다. 人物傳說 중 막산이형 전설에서는 시대가 受容할 수 없는 壯士의 虛飢와 挫折이 형상화되어 있다. 초인적인 能力을 가졌으나 사회가 受容해주지 않기 때문에 挫折된 慾望을 안고 추방되어 방황하다가 죽는 恨스러움은, 時代의 閉鎖性을 강렬하게 나타낸 것이면서 島民들의 소극적 저항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일반 壯士傳說에서는 濟州民이 갖고 있는 섬(島) 콤플렉스에서 해방하려는 의지가 抵抗의 모습을 띄고 나타나 있다.

이들은 힘과 힘의 대결에서 水賊을 무찌르고 本土 人物들을 제압한다. 또한 준엄한 복수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바로 現實의 非理와 運命에 대한 抵抗이고 삶의 한 樣式이다.

5.4. 濟州 堂神본풀이와 人物傳說의 분석을 통해 숙명적인 상황과 폐쇄된 사회에 대한 강렬한 抵抗과,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진지함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說話의 일부인 堂神본풀이와 壯士傳說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說話의 여러 장르 種에 대한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사회적 측면 연구의 도움 속에 제대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같은 한 試考의 性格을 떨 수 밖에 없다.

— Summary —

An Approach To Jeju Islanders Through Their Legends

Kil-un Hyun · Young-hwa Kim

1. Jeju legends provide an authentic picture of Jeju islanders by depicting their lives through the ages. For example, 'Dangsin-Bonpuri' has been created by villagers on Jeju island. 'Dang' means the actual assembly place of their spirits.

2. In the legend of 'Dangsin-Bonpuri', the complaints and lusts of the gods are revealed. The legend reflects not only the lives of Jeju islanders, but also their stamina and diligence.

3. Among the life-stories of gods, the Magsani-Type legend is an epic story about a character with a superhuman power and ability. But he wandered in frustration, and finally died of hunger, since the times and societies he confronted were hostile to him. Through hearing these stories, we can visualize the closed society and passive resistance of past times. Also, through these stories of common Jeju people with herculean strengths, we can see their will to escape from those conditions to which islanders were fated.

Jeju legends demonstrate that the spirit of Jeju islanders embodies a strong resistance against a closed society, and an affirmative earnestness toward their lives.